

## 나이지리아 반정부 시위 현황과 전망

- 2024년 8월 1일 나이지리아의 요베(Yobe), 카노(Kano), 아부자(Abuja), 라고스(Lagos) 등 주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8월 10일 종료하였으나 올해 10월 추가 시위를 예고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음.<sup>1)</sup>
  - 이번 시위는 2020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시위(#EndSARS<sup>2)</sup>) 이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였음.
  - 노동조합 등의 구심점이 있었던 이전의 시위와 달리 시위 지도자는 없으며, Z세대가 다수 시위에 참여하였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활동함.<sup>3)</sup>
  - 언론에 따르면 10일 동안의 시위에서 약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8월 22일 기준 2,111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되고 1,403명이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임.<sup>4)</sup>
  - 특히 보코하람(Boko Haram) 등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생계가 극심하게 어려워진 북부에서는 남부 지역에 비해 시위가 격화되어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실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음.
  - 북부 나이지리아의 카노(Kano), 지가와(Jigawa), 요베(Yobe), 카시나(Katsina) 등 일부 주(州)에서는 24시간 동안 통행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하였음.<sup>5)</sup>
- 주요 시위 원인으로는 티누부 대통령의 경제 개혁 정책 이후 심화된 고물가 문제 및 나이아 가치 폭락, 최근 케냐에서의 시위 확산 등이 있음.
  - 티누부 정부 이전부터 대두된 인플레이션과 빈곤, 기아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개혁을 시도해 정책 시행에 대한 비용이 시민들에게 고물가 등의 부담으로 발생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나이지리아는 기아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심각한 식량 불안정(severe food insecurity)’<sup>6)</sup> 발생 비율은 2021년~2023년 평균 22.6%로, 2014

1) The Guardian(2024.8.1.), “Up to seven reportedly dead in Nigeria after clashes between police and citizen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2.); CNN(2024.8.1.), “Violence erupts as Nigerians protest hunger across the n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2) SARS는 나이지리아의 강도퇴치 특수부대(Special Anti-Robbery Squad)의 약자로 현재는 해체되었음.

3) rfi(2024.8.1.), “Nigeria: des milliers de manifestants dans les rues pour exiger de meilleures conditions de vi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4) africanews(2024.8.9.), “Manifestations au Nigeria : au moins 22 morts et des balles perdue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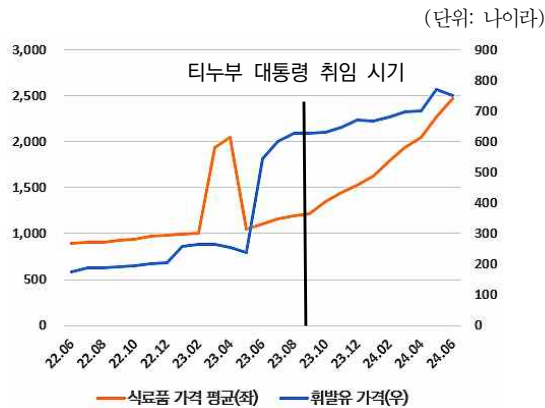
5) BBC(2024.8.2.), “Nigerians hit with 24-hour curfews amid protest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6)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품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심각한 식량 불안정(severe food insecurity)은 한 가정 내 최소 성인 1인 이상이 ‘식품 불안정 경험 지표(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의 질문에서 가장 극심한 경

년~2016년 평균인 11%의 2배로 증가하였음.

- 티누부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자 1970년대부터 지급해 온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연료 가격이 급등하였고,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그제(peg)를 폐지하고 나이라 가치가 폭락하여 물가 상승이 극심해짐.<sup>7)</sup>
- 이러한 보조금 중단과는 대조적으로, 티누부 정부가 추가예산을 사용하여 SUV 차량에 29억 나이라(약 360만 달러)를 지출하고, 영부인 집무실용 차량에 15억 나이라(약 19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의혹 등 사치품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여 불만이 쌓여왔음.<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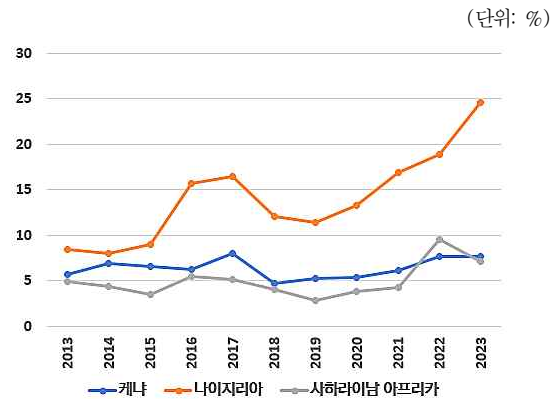
그림 1. 휘발유 및 평균 식료품 가격 추이



주: 나이지리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43개의 식료품 가격의 단순 평균값임..

자료: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그림 2.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World Bank Open Data.

그림 3. 나이라 환율 추이



자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표1. 티누부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관련 정책

분야	정책 내용
경제	- 정부의 재정적 여력 내 식료품 무상 제공 및 현금 지급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하
	- 비공식 부문 종사자를 공식 부문으로 편입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 제공
환율	- 이중환율제 폐지, 변동환율제 도입
연료 및 에너지	- 연료 보조금 폐지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기 보조금 폐지

자료: The Africa Report(2024.5.28.), “Nigeria: Tinubu’s first year - reforms without a compass”, Bloomberg(2024.8.6.), “Can Nigerians Endure Their Leader’s Economic Shock Therapy?” (검색일: 2024.8.2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힘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말함.

7) Forbes(2024.7.29.), “Nigeria’s Economic Recovery Under President Tinubu’s Lead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8) 달러 대비 나이라 환율은 기사가 작성된 시점인 2023년 11월 기준임.

-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케냐에서 발생한 시위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시위가 SNS를 통해 조직된 것으로 보임.
  -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X(구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EndBadGovernance(나쁜통치종식) 하에 시위를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케냐에서 발생한 시위와 유사점이 있으며, 시위 발생 이전에 케냐발(發) 시위가 나이지리아에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sup>9)</sup>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외부에서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 급증 등을 야기하면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극심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유사한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sup>10)</sup>
- 티누부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고자 경제 개혁을 시도해 IMF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28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 생활고 문제를 심화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억 5천만 달러 제공을 승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갈등을 완화하지는 못해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물가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sup>11)</sup>
- 케냐의 경우 세금 인상안인 ‘Finance Bill 2024’가 반대 시위로 인해 루토 대통령이 서명 의사 철회 후 국회에 반환한 사례가 있어 환율 등 나이지리아의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sup>12)</sup>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부패, 빈곤, 과도한 외채, 자국 화폐가치 하락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타 국가에서 시위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케냐의 시위에 영향을 받아 우간다에서도 지난 7월 23일 반부패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대가 10월에 추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나이지리아 국내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황인정 연구원

9) The Guardian(2024.8.3.), “Why are Nigerians protesting? Young people were roused by events in Keny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Reuters(2024.7.24.). “Nigeria’s police chief warns against Kenyan-style protest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10) Forbes(2024.7.29.), “Nigeria’s Economic Recovery Under President Tinubu’s Lead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11) World Bank Group(2024.6.13.), “Supporting Nigeria’s Homegrown Reforms: New World Bank Financing for Inclusive Growth and Revenue Diversific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9.)

12) Parliament of Kenya(2024.7.29.), “National Assembly rejects Finance Bill, 2024,”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 8. 26.).